

대전지역 주부들의 영양표시에 대한 선호도 및 이용실태 조사

최지현*, 정영진, 김수일, 김수정, 김지수. 충남대학교 보건학 박사과정*,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식품에서의 표시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. 그러나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제도에 관해서 식품영양 전문인들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. 본 연구는 식품구매의 주체인 주부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하여 연령, 학력, 수입 정도, 가족 수, 직업유무, 건강상태에 따라서 영양표시에 대한 선호도 및 이용실태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영양표시제의 형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 조사항목으로는 주의깊게 보는 영양성분, 영양표시를 많이 보는 식품, 영양표시 단위 및 영양성분 표시 형식에 대하여 조사하였고, 대전 지역 주부들의 인구특성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. 그 결과를 빈도,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고 t-test, ANOVA test를 이용하였으며, Duncans multiple rang test에 의해 차이를 검증하였다.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으로는 총열량(58.56%), 칼슘(56.76%), 콜레스테롤(54.05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식품 구매시 영양표시를 많이 보는 식품으로는 우유 및 유제품(69.37%)이 가장 높았고, 라면이나 국수류(8.11%)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. 영양표시 유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90.99%의 주부들이 압도적으로 영양표시가 있음을 선호하였으며, 단위형태 면에서는 1포장 단위 기준(55.41%) > 1인 분량 기준(32.88%) > 100g기준(11.71%)으로 나타나 대전 지역 주부들은 1포장 단위기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영양성분 표시 형식에 있어서는 자세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, 가로 막대 그래프보다는 세로 막대 그래프를, 방사형 그래프보다는 거미줄 그래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결론적으로 대전 지역 주부들은 영양표시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으며, 더 이해하기 쉽고 제품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